

‘新 총, 군, 쇠’, 군을 ‘AI 3대 강군’의 요람으로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총, 군, 쇠』에서 “인류 문명의 패권이 지능의 차이가 아닌 지리적 환경이 선사한 ‘출발선상의 혜택’에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비옥한 토양과 동서로 길게 뻗은 지형은 총과 강철을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문명 지도를 그렸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 국군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형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 시책과 맞물릴 만큼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과 ‘국방 AI 전환(AI)’의 거대한 흐름이 아닐까 한다.

이제 글로벌 전장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팔란티어와 안두릴 등 방산 테크기업의 성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선 AI로의 전환이 필수다. 즉 현대전은 ‘군대+AI+방산+첨단 기업’이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는 초연결 생태계 싸움으로 양



한현규 소령
육군53보병사단 정보참모처

상이 바뀌었다는 말과 같다.

우리 군도 유수의 대학들과 연계한 ‘국방 AI 교육대학’ 과정을 통해 군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정부의 AI 기초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혜택이 군 장병에게 확대된다면 인력 감축과 복무 비선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치 학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고의 학군지를 찾아가듯 우리 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밀도 높은 AI 교육의 성지인 ‘디지털 학군지’가 된다는 생각만으로 설렌다.

이를 위해 군 교육에서도 어학, 한자, 컴퓨터 등 다양한 자기개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지만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sP),

SQL개발자(SQLD),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데이터를 관리·운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복무기간 중 전문 자격을 갖추고 실무 데이터를 다뤄 본 경험이 청년들에게 제대 후 방산기업이나 글로벌 테크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나 또한 영여 전공자로서 ‘AI 무(無) 관련자’다. 하지만 비전공자일지라도 ‘AI IQ(지능지수)’를 높인다면 누구나 국방 AX의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남대 대학원 국방유·무인융합학과에 재학하며 데이터 분석의 기초인 ADsP와 SQLD 자격증을 땀다. 아울러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도 준비 중이다. 나만의 ‘디지털 총, 군, 쇠’를 갖추기 위한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세계 3대 AI 강국을 넘어 그 어떤 위협도 압도하는 ‘AI 강군’으로 국제무대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명예로운 해병을 향한 첫걸음



훈련병의 편지
최윤이병
해병대교육훈련단

지난 4일 해병대 신병 1329기로 수료의 순간을 맞았다.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고 당당한 해병이 되기까지 수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지만, 해병대는 단순히 군 복무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해병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꿈이자 반드시 걸어가고 싶었던 길이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해병대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선 늘 해병대 이야기가 오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해병대가 보여 준 희생정신과 용맹함,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선배 해병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는 해병대 정신을 강조하셨다.

특히 강한 단결력과 충성심, 어떤 상황에서도 맡은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는 책임감에 관한 이야기는 어린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줬고,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해병이 되겠다는 꿈을 품게 만들었다.

해병에 대한 자부심은 가족의 역사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해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하신 뒤 해병대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셨다. 1985년 경북 포항시 대왕암 천자봉 행군을 최초로 시작하셨고,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주요 직책을 거치셨으며, 해병대1사단 행정부사단장으로 복무를 마치고 1996년 명예롭게 전역하셨다. 지금도 할아버지께서는 해병대를 향한 사랑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계시며, 후배 해병들의 성장과 발전을 늘 응원하고 있다.

아버지 또한 병 786기로 입대해 군 복무를 마쳤다. 아버지는 군 생활 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와 해병대 정신을 아들에게 전해 주셨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해병대 정신으로 이겨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 모두 해병대원이었다는 사실은 큰 자부심이자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이번 신병 훈련 기간 해병대가 왜 강한 조직으로 평가받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과 교육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정신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순간에도 전우애와 단결력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온 명예와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해병이 되고자 한다. 오늘 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해병 3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해병대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에 해병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함께 흘린 땀방울과 적을 향한 한 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화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간 자리, 수백 m 밖 표적의 정중앙에는 예외 없이 구멍이 뚫려 있었다. 숨소리조차 통제하는 극한의 집중력, 방아쇠를 당기는 찰나의 결단. 최근 진행된 803군사경찰단 대테러특수임무중대와 807군사경찰대 특수임무소대(SDT), 경기도 남부 및 강원도 경찰청 경찰특공대(SOU)가 함께 호흡을 맞춘 ‘군·경 합동 저격수 사격 훈련’ 현장은 실전보다 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교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첨단 무기체계가 전장을 지배하는 듯 보이지만, 복잡한 도심지나 은폐된 진지에서의 저격은 여전히 적에게 가장 큰 심리적 공포와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합동훈련은 군과 경찰이 대테러 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변화하는 미래전 양상에 발맞춰 실천적 저격 능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상현수 대위
육군7기동군단
807군사경찰대

이번 훈련의 가장 큰 사격 성과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전술적 노하우와 탄도 데이터를 투명하게 교류하고, 이를 실사격에 적용해 ‘초탄 명중률’을 극대화했다는 데 있다. 군사경찰은 야전환경과 군사시설 방호에 특화된 장거리 사격술을 공유했고, 경찰특공대는 복잡한 도심지 상황에 최적화된 초정밀 사격술을 선보였다. 특히 미군이 실전에서 강조하는 ‘관측수와 사수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적극 반영해 거리별 풍향과 풍속을 읽어 내는 능력을 집중 연마했다.

미세한 호흡의 차이, 기재된 제원과 실제 탄착군의 오차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은 치열한 전술토의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바로 사격 결과로 증명됐다. 근·원거리 사격부터 전장상황을 가장

한 스트레스 사격까지 양측 모두 훈련 전 대비 30% 이상 향상됐다. 단순히 사격 기술 향상을 넘어 ‘정밀사격’ 능력을 완벽히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현대전은 군과 경찰의 관할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합동작전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서로의 장비와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같은 타이밍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호흡을 맞췄다. 소속은 달랐지만 ‘완벽한 임무 완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는 진정한 전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경찰특공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표적을 향해 동시 사격을 하던 우리 소대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고 든든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손가락의 굳은살은 국민들을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접수된 원고는 국방일보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m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응모한 휴대전화 기반 카키오톡으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13, (일반)02-2079-3713